

‘키치(Kitsch)화’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초등 지리 교육적 비판: 메를로-퐁티의 몸 철학을 중심으로

황 인*

A Critique of ‘Kitschified’ Field Trips from the Perspective of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Focusing on Merleau-Ponty’s Philosophy of the Body

In Hwang*

요약 : 본 연구는 현행 초등 지리 현장체험학습이 안고 있는 ‘장소의 키치(Kitsch)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메를로-퐁티(Merleau-Ponty)의 현상학적 몸 철학을 통해 지리적 실재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오늘날 버스 차창 너머로 장소를 구경하는 관조적 시선이나 파편적 정보 수집에 매몰된 활동지 중심의 체험학습은 학생을 탈육화된 의식으로 전락시키고 지각적 키치화를 초래한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퐁티의 ‘신체-주체’, ‘체험된 공간’, ‘세계의 살(Chair)’ 개념을 적용해 공간을 실존적 교감의 장으로 재해석한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체험학습은 단순한 시각적 구경을 넘어, 학생의 신체가 낯선 장소의 역사와 익명적 타인들의 삶 속에 능동적으로 닿을 내리는 ‘정박(Ancrage)’의 과정이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주요어 : 초등 지리 교육, 현장체험학습, 메를로-퐁티, 지각적 키치화, 신체-주체

Abstract :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kitschification of place’ in current elementary geography fieldwork and seeks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to restore geographical reality through Maurice Merleau-Ponty’s philosophy of the body. Today’s fieldwork, characterized by the contemplative gaze of sightseeing through bus windows and worksheet-centered activities focused on fragmented information, reduces students to disembodied consciousnesses and causes perceptual kitschification.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reinterprets space as a field of existential communion by applying Merleau-Ponty’s concepts of the ‘body-subject,’ ‘lived space,’ and the ‘flesh of the world’ (la chair du monde). Consequently, this paper argues that authentic fieldwork must transcend mere visual observation. It should instead be reconceptualized as an active process of ‘anchoring’ (ancrage), where the student’s body directly intertwines with the unfamiliar history of the place and the lives of anonymous others. Key Words :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Fieldwork, Merleau-Ponty, Perceptual kitschification, Body-subject

I. 잃어버린 지리적 실재성을 찾아서

지리학의 근원적 출발점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 대한 감각과 이해이다. 페스탈로치(J. H. Pestalozzi)가 야외 답사를 반복적으로 진행

하며 계곡의 모습을 관찰하고 진흙으로 모형 만들기를 하는 방식으로 지형도와 등고선 읽는 방법을 가르쳤듯이(권정화, 2015:21), 삶의 터전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교실 바깥에서 실제 감각을 느껴보는 것이다. 초등 지리 교육은 교실 안의 추상적인 텍스트를 넘어, 학생들을

*전의초등학교 교사(Teacher, Jeonui Elementary School, in4804@hanmail.net)

생생한 세계의 한가운데로 이끌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이라는 실천적 방법론을 오랜 시간 강조해 왔다(조성욱, 2024:379). 그러나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은 과연 학생들을 지리적 실재성과 조우하게 하고 있는가? 현행 초등 지리 현장체험학습은 ‘안전’과 ‘효율성’이라는 행정적 명목 아래, 철저히 통제된 체험관이나 두꺼운 유리벽, 펜스로 둘러싸인 아쿠아리움 같은 폐쇄적인 공간으로 학생들의 체험을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대형 버스의 통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관조하거나, 장소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대신 사전에 기획된 ‘활동지’의 빈칸을 채우는 지적 연산에만 몰두하게 한다. 이러한 관찰자적 시선과 활동지 중심의 교육은 학생들을 세계와 분리된 데카르트적 ‘투명한 의식’으로 전락시키는 동시에 단편적인 지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다(김대훈, 2009:19). 이는 결국 장소를 실존적 얽힘의 터전이 아닌, 한낱 시각적으로 소비되는 ‘지각적 키치(Kitsch)’로 타자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Relph, 2005:184). 신체가 닿을 내리지 못하고 타인과의 부대낌이 없어진 현장체험학습은 결국 지리의 본질인 ‘장소감’을 증발시키고, 학생들을 부유하는 이방인으로 남겨둔다. 이에 본 연구는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의 신체 현상학과 공간 존재론을 이론적 렌즈로 삼아, 현행 초등 지리 현장체험학습의 인식론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퐁티에게 지각은 머릿속의 사유가 아니라, 신체-주체(Corps-sujet)가 낯선 세계의 저항과 맞부딪히며 파고드는 구체적인 ‘행동(Je peux)’이자 얽힘이다(PP¹⁾, 1945/2025:275). 본 연구는 퐁티의 ‘정박(Ancrage)’, ‘이행의 종합’, 그리고 ‘상호신체성(Intercorporeité)’ 개념을 통해 지리 교육이 잃어버린 신체의 역동성을 복원하고, 진정한 장소는 관람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살(Chair)이 교차하는 실존적 지평임을 규명할 것이다.

본 연구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관점을 초등 지리 현장체험학습에 적용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1. 메를로-퐁티의 신체-주체론과 공간 존재론은 객관주의적 공간 관념을 어떻게 해체하며, 이는 지리 교육에 어떠한 철학적 함의를 제공하는가?
2. 메를로-퐁티의 렌즈로 투영해 볼 때, 현행 초등 지리 현장체험학습(활동지 중심, 기하학적 공간, 관찰자적 시선)이 지닌 지각적·존재론적 맹점은 무엇인가?

3. 상호신체성과 신체적 닻 내림(Ancrage)을 기반으로 한 대안적 현장체험학습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거주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본 연구는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를 중심 방법론으로 채택한다. 첫째, 메를로-퐁티의 주저인 『지각의 현상학(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과 후기 유고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Le Visible et l'invisible)』중 주제와 연관된 부분을 분석하여 신체, 공간, 타인에 대한 현상학적·존재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현행 초등 지리 교육과 현장체험학습 관련 연구 및 교육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지리학계와 교육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감각적 매핑(Castner, 1990), 상호적 서성이기(Phillips and Johns, 2012) 및 로컬 푸드의 원리 등의 구체적 사례를 퐁티의 ‘살(Chair)’과 ‘교차(Chiasme)’ 개념으로 재해석하여 대안적 모델을 축조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실증 데이터 수집이나 교수·학습 모형의 실험적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메를로-퐁티(Merleau-Ponty)의 현상학적 문헌과 기존의 지리 교육 연구들을 교차 분석하여, 초등 지리 현장체험학습이 지닌 인식론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문헌 기반의 이론적 탐구(Theoretical study)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상학적 사유가 지리 교육 현장에 제공할 수 있는 철학적 당위성과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대안 모델의 실제 현장 적용 및 실증적 효과 검증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II. 메를로-퐁티의 신체-주체론과 공간 존재론

후설 현상학은 의식과 그 대상이 불가분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식의 지향성(Intentionality)’에 입각하여, 주관의 인식 작용을 통해 세계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받고 현상하는지를 탐구하는 철학이다(이종훈, 2012:37). 그는 우리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관과 객관을 분리하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현상 그 자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합리주의적 사고를 비판하고 현상학을 창시한 후설은 순수의식의 동반자로서 몸의 역할에 주목했다. 후설은 의식 지향성의 성립 조건으로서, 선형

적 순수의식이 경험적 의식으로 되기 위한 매개로서 몸의 필요성을 역설한다(권정화, 2005:208-211). 이러한 후설의 현상학은 메를로-퐁티로 이어진다. 메를로-퐁티 역시 선대 현상학자들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합리주의에 기반한 지식의 소박성을 비판하고, ‘사물 그 자체에로’ 복귀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순수의식에 도달하기 위해 현상학적 환원에 충실했지만 그 결과 환원불가능성에 도달했다며 후설을 비판한다(조광제, 2004:81). 메를로 퐁티는 몸에 토대를 둔 ‘비 반성적-자연적 태도’를 역설한다. 이를 통해 그는 의식 지향성이 아닌 ‘몸 지향성’을 정립하고 전통적인 인식론과 존재론을 넘어선다.

1. 신체-주체(Corps-sujet)와 지각의 우선성

근대 서양 철학을 지배해 온 객관적 사유, 특히 데카르트(R. Descartes)의 이원론과 칸트(I. Kant)의 주지주의는 주체와 세계를 철저히 분리하는 오류를 범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명제에서 주체는 신체를 벗어던진 순수한 사유의 결정체이자, 세계 밖으로 물러나 대상을 관조하는 투명한 의식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탈육화된(disembodied) 의식에게 세계는 단지 기하학적 좌표 위에 놓인 연장(Extensio)이거나, 인식의 형식에 의해 머릿속에서 구성되는 대상일 뿐이다(김대훈, 2009; Merleau-Ponty, 2025).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을 통해 이러한 관찰자적 시선, 즉 ‘위에서 내려다보는 신의 시선(Pensée de survol)’을 해체한다. 그는 주체가 텅 빈 허공에서 세계를 굽어보는 순수 대-자-존재(Pour-soi)가 아니라, 이미 끈적한 물질적 세계 한가운데 던져져 있는 ‘세계-내-존재(Être-au-monde)’임을 천명한다. 의식은 스스로를 창조하는 투명한 상자가 아니며, 항상 구체적인 상황과 지향 속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발견한다. 따라서 세계는 주체가 구성해 내는 대상(Object)이 아니라, 주체의 존재가 뿌리내리고 있는 근원적 지평으로 복원된다(PP:29).

세계와 단절된 순수의식의 허상을 걷어낸 자리에, 퐁티는 실존의 근원적 매개인 ‘신체-주체(Corps-sujet)’를 위치시킨다. 종래의 객관적 사유에서 신체는 단순한 물질적 연장²⁾(res extensa)이거나 외부의 자극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기계 장치(즉-자-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퐁티에게 신체는 세계를 소유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자,

의미가 발생하는 근원적 장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퐁티는 근대적 주체의 선언이었던 “나는 생각한다(Je pense)”를 “나는 할 수 있다(Je peux)”로 전환한다. 의식의 지향성(Intentionnalité)은 관념적인 압의 작용이 아니라, 대상을 향해 손을 뻗고 몸을 기울이는 신체의 실천적이고 운동적인 능력이다. 내가 사물을 지각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사물의 속성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체적 도식(Schéma corporel)이 사물이 요구하는 파악 가능성(Grip)에 응답하여 팽팽한 ‘지향궁³⁾(Arc intentionnel)’을 형성하는 사건이다(PP:271-274).

결국 메를로-퐁티가 도달한 ‘진정한 코기토(Le cogito véritable)’는 자기 자신만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고립된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저항과 부대끼며, 낮은 공간과 타인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내던지는(탈-현전화) 능동적이고 행동하는 신체이다. 주체는 오직 세계 속으로 자신의 신체를 투사하고 얽힘으로써만 자신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다.

2. 기하학적 공간의 해체와 체험된 공간(L'espace vécu)

근대 지성주의와 경험주의는 세상을 대상들이 담기는 ‘텅 빈 상자’이거나, 사물들 사이의 외적인 관계를 측정하는 기하학적 그리드(Grid)로 간주해 왔다. 이 유클리드적 관점에서 공간은 균질하고 무관심한 연장(Extensio)이며, 주체의 실존적 개입 없이도 수학적 좌표계(X, Y, Z)를 통해 보편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위치의 공간성(Spatialité de position)’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객관적 공간이 사유에 의해 사후적으로 추상화된 2차적 결과물일 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원초적 공간이 아님을 비판한다. 그에게 공간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그 자체를 드러내는 ‘상황의 공간성(Spatialité de situation)’이다(PP:212-214).

공간의 위와 아래,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방향성은 외부 사물(내용)이 주입하는 것도, 주체의 정신이 계산해 내는 형식도 아니다. 그것은 주체의 신체가 특정한 물리적 저항과 상황 속에 닿을 내리고 목적을 향해 긴장할 때, 즉 세계에 대한 신체의 ‘정박(Ancrage)’을 통해서만 창설된다. 신체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의 지평에 틀어박힐 때 비로소 공간은 추상적 좌표를 벗어나, 의미(Sens)와 방향

성을 지닌 ‘체험된 공간(L'espace vécu)’으로 피어난다 (PP:522-525).

기하학적 공간을 해체한 폰티는 공간의 여러 차원 중 특히 ‘깊이(Profondeur)’를 가장 실존적인 차원으로 격상시킨다. 고전적 사유에서 깊이는 단지 너비가 옆으로 둘러진 제3의 차원, 즉 주체로부터 사물까지의 수학적 ‘거리’로 오해받았다. 그러나 폰티에게 깊이는 사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사물이 나를 향해 있고 내가 사물을 향해 다가가는 ‘나와 사물 사이의 끈’이다. 깊이는 신체를 부추기는(Inciting) 동기이자, 세계가 주체에게 건네는 파악 가능성(Grip)의 제안이다(PP:473).

이러한 깊이의 차원은 한자리에 고정된 관찰자의 시선으로는 결코 포착될 수 없다. 깊이는 주체가 대상의 이면을 향해 자신의 신체를 이동시킬 때, 이전의 시점(Perspective)과 다가올 시점이 신체적 움직임 속에서 매끄럽게 엮이는 ‘이행의 종합(Synthèse de transition)’을 통해서만 현상한다. 즉, 공간의 입체성은 관조하는 지성이 구성해 내는 이미지가 아니라, 대지를 딛고 공간을 가로지르는 신체의 연속적인 운동이 직조해 내는 실존적 사건이다(PP:594-595).

깊이가 신체의 움직임임을 요구하듯, 메를로-폰티에게 ‘운동(Mouvement)’은 공간을 살아내는 핵심적인 방식이다. 물리학자들은 운동을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dx/dt)로 사유하지만, 폰티는 운동을 이렇게 주체화(사유)하는 순간 그 이행의 역동성은 파괴된다고 경고한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운동은 대상을 인식하기 이전에 신체가 이미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주체화되기 전의 현상’이며, 지각 장(Field)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한다. 과학적 사유에서 운동은 기준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Relative) 현상이지만, 신체-주체에게 운동은 절대적(Absolute)이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나의 신체가 세계의 지평에 확고하게 ‘정박’해 있기 때문이다. 주체가 세계에 닿을 내린 상태에서 공간을 가로지를 때, 그 이동은 텅 빈 상자 속의 좌표 이동이 아니라, 주체와 세계가 맺고 있는 실존적 관계가 갱신되는 절대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 된다(PP:511).

3. 상호신체성과 경험의 침전(Sedimentation)

메를로-폰티에게 신체가 정박하는 세계는 단순한 물리적 사물들의 집합인 자연적 세계(Monde naturel)에 머물

지 않는다. 주체는 자연적 세계에 틀어박힘과 동시에, 언어와 도구, 제도가 얽혀 있는 문화적 세계(Monde culturel)로 투신한다. 고전적 사유는 자연적 대상과 문화적 대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두를 인식의 대상으로 환원시켰으나, 폰티는 문화적 대상 속에 타인의 지향성과 인격적 행위가 응축되어 있음을 간파한다.

도구나 건축물, 인간이 내어 놓은 길과 같은 문화적 대상들은 허공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시간의 토대 위에 얽혀 전개된다. 주체가 이 대상들과 관계 맺을 때,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촉각의 차원을 넘어선다. 과거 무수한 익명적 타인들이 세계를 향해 던졌던 실천적이고 지향적인 행위들은 한 번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공간의 결 속에 켜켜이 쌓여 굳어진다. 폰티는 이를 ‘침전(Sédimentation)’이라 명명한다. 따라서 주체가 물리적 공간 속의 사물을 지각하고 다루는 행위는, 곧 그 장소에 침전된 타인들의 역사적 시간과 삶의 방식을 자신의 신체 도식 안으로 흡수하고 체화하는 거대한 실존적 사건이 된다(PP:621).

공간 속에서 주체는 문화적 대상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타인(Autru)과 조우한다. 데카르트를 비롯한 주지주의 철학자들은 타인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타인의 외형을 바탕으로 그 내면에 나와 같은 정신이 있을 것이라 유추하는 ‘추론(Inference)’의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폰티는 이러한 유추적 사유를 비판하며, 우리는 타인의 슬픔이나 분노를 머리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체적 표정과 행동을 통해 ‘직각적으로 지각’한다고 선언한다(PP:623).

타인은 내 앞의 관찰 가능한 대상(Object)이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세계를 향해 지향성을 투사하는 또 다른 주체이다. 의식이 닫힌 상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신체로서 세계에 개입할 때, 필연적으로 나의 지각 장(Field)과 타인의 지각 장은 서로 교차하고 맞물린다. 주체는 애초에 고립된 섬(유아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신체적으로 얽혀 있는 ‘상호신체성(Intercorporeité)’을 바탕으로 세계 내에 ‘함께-실존(Co-existence)’한다(PP:641).

특히 폰티는 이 함께-실존함의 얽힘 속에서, 타인이 “그의 현상적인 몸의 정점에서 나타나 일종의 <장소성(Spatialité/Locality)>을 부여받는다”고 통찰한다(조광제, 2004:380). 즉, 공간의 구체적인 장소성은 추상적 좌표에서 연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 숨 쉬고 행동하는 타인의 현상적인 몸과 나의 몸이 구체적으로 교차

할 때 비로소 탄생한다(PP:628).

결국 ‘사회적인 것(Le social)’은 주체가 관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외부의 대상이 아니다. 주체는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초월적 시선, 즉 ‘신(God) 속에서’ 타인과의 고립을 극복할 수 없다. 오직 서로의 신체가 직접 부대끼는 구체적인 실천과 교차를 통해서만 공존이 가능하며, 사회적 세계는 주체가 이미 그 안에서 숨 쉬고 얽혀 살아가는 ‘존재의 차원’ 그 자체로 현상한다(PP:646).

4. 존재론적 도약: 세계의 살(Chair)과 교차(Chiasme)

메를로-퐁티의 사유는 전기 『지각의 현상학』에서 규명한 ‘신체-주체론’을 넘어, 미완의 유고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Le Visible et l’invisible)』에 이르러 주체와 세계의 완전한 존재론적 융합으로 도약한다. 근대 철학의 이원론적 구도 속에서 주체(정신)와 객체(물질)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퐁티는 신체가 지닌 근원적인 ‘애매성(Ambiguïté)’을 통해 이 이분법적인 간극을 극복한다(VI, 1964/2004:187).

나의 신체는 세계를 바라보고 만지는 능동적인 지각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타인이나 사물에 의해 보여지고 만져지는 세계 속의 대상(객체)이기도 하다. 즉, 신체는 주체적 시선을 던지는 ‘보는 자(Voyant)’와 그 시선에 포착되는 대상인 ‘보이는 것(Visible)’이라는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지닌다. 이 이중성은 논리적 모순이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와 세계가 처음부터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한 존재론적 지반 위에서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조건이다. 의식이 닫힌 상자로서 세계를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체는 필연적으로 세계의 틈새에 속박되어 애매하게 진동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VI:198-202).

신체가 지닌 이 숭고한 애매성은 마침내 메를로-퐁티 후기 철학의 정점인 ‘살(La chair)’이라는 독창적인 존재론적 개념으로 응축된다. 퐁티에게 살은 생물학적 근육이나 피부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대 철학의 물, 불, 공기처럼 만물을 구성하는 존재의 근원적 원소(Élément)이자,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존재의 두께이다. 나의 몸이 세계의 사물을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내 몸이 세계 밖을 떠도는 유령(순수 의식)이 아니라 세계와 똑같은 재료, 즉 ‘세계의 살(Chair du monde)’로 직조되어 있기 때문이다(VI:215).

퐁티는 이 융합의 신비를 나의 오른손이 나의 왼손을 맞잡는 경험을 통해 설명한다. 내가 왼손을 만질 때, 만지는 주체였던 오른손은 순식간에 만져지는 객체로 그 지위가 역전되며, 이 둘 사이의 경계는 끊임없이 뒤엎힌다. 주체와 세계, 능동과 수동, 안과 밖이 X자 형태로 엇갈리며 서로를 침투하는 이 역동적인 얽힘이 바로 ‘교차(Chiasme)’이다. 따라서 세계는 내 앞에 놓인 객관적 대상이 아니며, 나 역시 세계 밖의 관찰자가 아니다. 지각은 관조가 아니라 나의 삶과 세계의 삶이 맞부딪히며 존재의 결을 직조해 내는 치열한 교차의 사건이다(VI:217).

결국 메를로-퐁티 현상학의 궁극적 지향점은 투명한 시선으로 세계를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세계가 최초로 맞부딪히며 지각적 의미가 창출되며 솟아오르는 근원적인 도약, 즉 ‘원-천(Ur-Sprung)’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주체가 자신을 세계 밖으로 분리하는 고립의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체를 세계의 살 속으로 능동적으로 뻗어내며 얽힐 때 비로소 진정한 실존적 정박이 완성된다(PP:651).

III. 메를로-퐁티 현상학의 관점으로 현장체험학습 바라보기

초등 지리 교육에서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공간 인지 능력의 발달, 장소감 및 애향심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함양, 혹은 효과적인 사전·사후 활동지(Worksheet) 개발과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데 집중해 왔다(조상균, 2008; 정재승, 2011; 서정현, 2017; 조성욱, 2024). 이러한 연구들은 교실 밖 실제 공간에서의 학습이 갖는 유용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현장체험학습을 ‘객관적 지식의 획득’이나 ‘시각적 정보의 수집’이라는 인지주의적 틀 안에 가두어두는 한계를 지닌다. 기존 연구에서 학생의 신체는 정신(인지)을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는 수송 수단이거나, 대상을 관찰하기 위한 거치대에 불과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인지주의적, 표상적 장소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를로-퐁티의 몸 현상학을 도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소를 시각적으로 대상화하여 분석하는 기존의 방식을 비판하고, 이성적 반성 이전에 세계와 교감하는 ‘신체-주체(Body-subject)’의 실존적 얽힘을 현장체험학습의 새로운 존재론적 기반으로 제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리 교육 연구들과 명확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를 전개함에 있어 철학적 용어와 지리학적 용어의 층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II 장(이론적 배경)에서는 메를로-퐁티 현상학의 원개념을 충실히 서술하기 위해 ‘세계(Monde)’라는 철학적 용어를 원어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III 장부터 전개되는 초등 지리 현장체험학습의 맥락에서는, 이 현상학적 ‘세계’가 곧 학생의 신체가 구체적으로 닿을 내리고 교감하는 지리학적 ‘장소(Place)’와 동일한 실존적 층위임을 밝힌다. 따라서 교육적 대안을 논의하는 이후의 장에서는 이를 지리학적 핵심 개념인 ‘장소’로 치환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1. 사유하는 기계로 전략한 주제: 활동지 중심 교육의 맹점

기하학적 공간 과학으로서의 지리학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장소 개념에 대해서 메를로 퐁티는 세계는 ‘지식보다 우선하는 것이며, 지식이란 항상 이 세계에 대한 언급이다. 모든 과학적 도식화는 이 세계와 관련된 추상적인 기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시골에서 숲이나 들판, 강에서 미리 배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다. 이는 과학적 지리학이 인간, 공간, 자연을 탐구 대상으로 삼기에 생활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Relph, 2005:33-34).

현행 초등 지리 현장체험학습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는 그림 1과 같은 사전에 제작한 ‘활동지’이다. 교

육 현장에서는 빈칸을 채우고 퀴즈의 정답을 찾아내는 이 과정을 학습의 증거이자 내실 있는 체험의 지표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메를로-퐁티의 ‘진정한 코기토(Le cogito véritable)’ 관점(PP:540)에서 볼 때, 활동지 중심의 교육은 학생을 장소와 교감하는 신체-주체가 아니라, 장소 밖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카르트적 ‘투명한 의식’으로 간주하는 주지주의적 한계를 지닌다. 활동지는 현장의 무한하고 풍요로운 지각적 애매성을 사전에 차단된 몇 가지 객관적 지식의 틀로 축소하는 강력한 ‘지각의 검열관’으로 작동한다. 학생들은 낯선 장소의 공기, 소음, 타인들의 움직임과 같은 세계의 살(Chair)과 직접 부대끼며 의미를 생성하는 대신, 활동지가 지시하는 특정 시각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포획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퐁티의 일갈처럼, 의식에게 장소의 나타남은 고정된 정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생생한 사건인 ‘현상’이어야 한다(PP:628). 그러나 활동지를 든 학생은 장소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대신, 장소의 총체성을 분절하여 활동지의 틀에 맞추어 인지적으로만 파악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현장체험학습을 장소와의 실존적 조우가 아닌, 야외로 장소만 옮긴 ‘이동식 서류 작업’으로 변질시킨다.

나아가 활동지는 학생의 신체가 지리적 공간에 뿌리내리는 존재론적 ‘정박(Ancrage)’을 구조적으로 제한한다. 메를로-퐁티에게 의식의 지향성은 머릿속의 관념적 작용이 아니라, 대상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손을 뻗는 신체의 실천적이고 운동적인 능력, 즉 “나는 할 수 있다(Je peux)”의 발현이다(PP:275). 장소의 참된 의미는 신체가 그곳의 거친 저항과 마주하며 팽팽한 저항궁을 당길 때 비로소 창설된다. 그러나 활동지에 시선과 인지적 에너지를 빼앗긴 학생의 신체는 눈앞의 지리적 환경을 향해 지향성을 능동적으로 투사하지 못한다. 그들의 일차적 과업은 장소의 물리적 저항을 이겨내고 균형을 잡는 신체적 행동(Je peux)이 아니라, 종이 위 문항의 답을 찾아내는 지적 연산(Je pense)으로 대체된다. 그 결과, 학생의 몸은 낯선 로컬의 대지 위에 확고하게 닿을 내리지 못한 채, 표면 위를 걸도는 부유하는 객체로 소외된다. 주체가 행동하는 신체로서 그 장소의 틈새로 파고들지 못할 때, 지리적 공간은 실존적 깊이를 상실하고 한낱 관념의 배경으로 납작해지고 만다. 결국 활동지 중심의 체험학습은 학생들을 공간에 정박하지 못하게 하는 ‘부유하는 지각’의 상태로 밀어 넣어, 진정한 장소감의 형성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제2관 체험활동지 '발행물'을 살펴보면 거래가 격었던 변화와 시련을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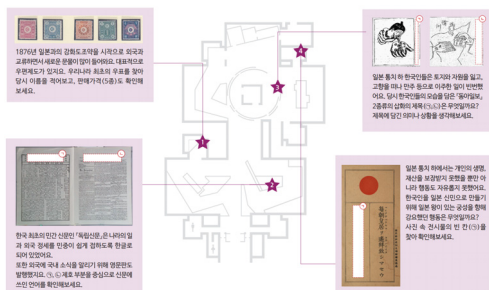


그림 1. 독립기념관 체험활동지

출처: 독립기념관 공식 홈페이지, 2025.

2. 관찰자적 시선과 공간의 타자화: 유리창 너머의 지리

장소의 진정성 파괴를 논함에 있어 렐프(Relph, 2005)의 ‘키치(Kitsch)’개념은 중요한 이론적 시작점을 제공한다. 렐프에게 키치란 대중 매체와 자본에 의해 규격화되고 복제된 ‘진정성 없는 장소’ 그 자체, 즉 경관의 인위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키치의 논의 평면을 물리적 경관의 층위에서 메를로-퐁티의 ‘지각적 층위’로 전이시키고자 한다.

렐프가 가짜 장소가 양산하는 ‘장소상실(Placelessness)’의 풍경을 비판했다면,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은 장소의 인위성을 넘어 그 장소를 마주하는 학생의 지각 방식 자체가 규격화되는 ‘지각적 키치(Perceptual Kitsch)’이다. 오늘날 현장체험학습의 주된 목적으로 선호되는 아쿠아리움, 대형 박물관, 직업체험관 등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계산된 기하학적 공간의 전형이다. 그림 2는 안전을 강조하는 이러한 장소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공간들은 학생 동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매끄럽고 마찰 없는 세트장이며, 메를로-퐁티가 비판한 ‘빈 상자로서의 공간’을 현실에 구현한 구조물이다. 이곳에서 지리적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저항을 상실한 채, 오직 관람의 편의를 위해 수학적 좌표(X, Y, Z)에 따라 재배치된 대상(Object)으로 환원된다. 이러한 기하학적 공간에서 학생의 신체는 세계에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매끄러운 바닥과 정해진 동선은 신체가 균형을 잡거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대지에 닿을 내리는 ‘정박(Anchorage)’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체적 정박이 제한된 공간에서 학생들은 장소의 결을 온몸으로 더듬는 대신, 안전한 관찰자적 시선으로 전시된 풍경을 수동적으로 소비하게 된다. 결국 현행 체험학습의 공간은 장소가

품고 있는 본연의 실존적 깊이와 엄함을 소거하고, 시각적으로 화려하게 가공된 이미지만을 제공하는 ‘지각적 키치(Perceptual Kitsch)’를 양산한다. 키치화된 공간과 지각적 키치 속에서 학생의 지각은 장소의 삶(Chair)과 교차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삶의 터전이 아닌 일회성 구경거리로 철저히 타자화된다.

지각적 키치의 문제는 목적지의 기하학적 특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과정, 즉 대형 버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바깥 풍경을 관람하는 행위 역시 장소를 평면화하는 인지적 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메를로-퐁티에게 장소의 ‘깊이(Profondeur)’는 사물에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주체가 신체를 이동시키며 세계의 이면을 끊임없이 들춰내고 연결하는 ‘이행의 종합(Synthèse de transition)’을 통해서만 획득되는 실존적 차원이다(PP:489). 그러나 대형 버스의 유리창은 학생의 신체와 세계 사이를 가로막는 절대적 단절의 경계이다. 유리창 안의 안전지대에 고립된 학생은 장소를 가로지르며 직접 깊이를 종합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버스의 빠른 속도와 창틀이라는 프레임은 장소를 2차원의 파편화된 이미지로 전락시키며, 학생의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나와 아무런 실존적 끈을 맺지 못하는 ‘상대적 운동’의 연속일 뿐이다. 이동은 신체가 세계의 저항과 부딪히며 지각 장 전체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주체화되기 전의 현상’이어야 하지만, 버스 안에서의 이동은 장소를 시간(t)에 따른 위치 변화(x)로 사유하는 기계적이고 추상적인 운동으로 축소된다. 이처럼 통유리 버스는 학생을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신의 시선(Pensée de survol)’의 위치에 강제로 앉혀둠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입체성을 거세하고 세계를 완벽하게 타자화하는 주지주의적 공간 관념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3. 단절된 사회적 세계: 상호신체성의 부재와 고립된 체험

지리적 장소는 텅 빈 자연적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땀과 노동, 인격적 행위가 켜켜이 침전(Sédimentation)된 ‘문화적 세계’이자 ‘사회적 세계’이다(PP:638). 따라서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히 물리적 지형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장소에 깃든 역명의 타인들과 실존적으로 조우하는 사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초등 지리 교육은 학생들을 안전하고 통제된 관찰자의 위치에



그림 2 키자니아의 직업 체험 홍보 문구 및 이미지 출처: 키자니아 공식 홈페이지, 2026.

고립시킴으로써, 현지 주민들의 살아 숨 쉬는 삶을 한낱 구경거리나 풍경의 일부로 타자화하는 한계를 지낸다.

메를로-퐁티는 주체가 타인과 맺는 관계에 있어, 대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선, 즉 ‘신(God) 속에서의’ 초월적 관조로는 유아론적 고립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PP:640). 통유리 버스 안에서 현지인들의 일상을 스쳐 지나가듯 바라보거나, 민속촌이나 체험관에서 잘 연출된 노동의 재현(Representation)을 구경하는 행위는 정확히 이 ‘신의 시선’을 모방한다. 이러한 관찰자적 시선 속에서 타인은 나와 세계를 공유하는 동등한 지향적 주체가 아니라, 나의 인식틀 안에서 해부되고 소비되는 대상(Object)으로 전락한다. 학생들은 타인의 구체적인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각하는 대신, 활동지라는 추상적 잣대를 들이대며 현지의 사회적 사건들을 외부의 객관적 지식으로만 박제해 버린다.

타인이 대상화된 공간에서는 메를로-퐁티가 강조한 주체들의 ‘함께-실존함(Co-existence)’, 즉 상호신체성(Intercorporeité)이 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철저히 차단된다. 퐁티에게 참된 지각은 나의 몸과 타인의 현상적인 몸이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교차하고 부대끼 때 비로소 완성된다. 장소성(Locality)이란 지도상의 수학적 좌표가 아니라, 타인이 “그의 현상적인 몸의 정점에서 나타나” 나와 물리적으로 맞부딪힐 때 비로소 탄생하는 실존적 울림이다(PP:628).

홍정아(2026)는 지각이 개인의 경험 속에서 지식으로 형성되는 ‘몸-체험적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땀 흘릴 필요도, 추위와 더위를 견딜 필요도 없는 쾌적한 체험관에서의 경험은 신체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한다. 오늘날의 현장체험학습은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명목하에 학생의 신체가 현지인의 삶의 궤적과 마찰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 재래시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상인과 눈을 맞추며 흥정하거나, 농번기의 흙먼지 속에서 지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친 신체적 업힘은 배제된다. 이처럼 타인의 지향성과 나의 지향성이 교차하는 상호신체적 역동성이 증발해 버린 공간은 더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없다. 결국, 사회적 세계와의 단절을 강요하는 현행 체험학습은 학생들을 공간의 껍데기만 훑고 지나가는 부유하는 이방인으로 남겨두며, 지리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진정한 ‘장소감’의 형성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IV. 메를로-퐁티의 상호신체성에 기반한 지리 현장체험학습의 재구성

현행 초등 지리 교육이 직면한 지각적 키치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관찰자의 위치에서 해방시켜 세계와 직접 교차하는 ‘거주하는 주체’로 복원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메를로-퐁티의 침전 이론과 체현(Embodiment) 담론을 바탕으로, 초등 지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체험 모델의 방향성을 탐색한다.

1. 사유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지향궁의 회복과 다감각적 장소 읽기

현행 현장체험학습이 학생을 ‘사유하는 기계(Je pense)’로 전락시켰다면, 대안적 지리 교육의 첫걸음은 학생을 다시 ‘행동하는 신체(Je peux)’로 복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메를로-퐁티에게 지각은 대상에 대한 지적 해석이나 관념적 사유가 아니다. 그것은 주체의 신체적 도식(Schéma corporel)이 세계가 건네는 물리적 저항과 요구에 응답하여 팽팽한 ‘지향궁(Arc intentionnel)’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자 실천이다(PP:272). 따라서 교사는 현장에서 학생들의 시선을 종이 위 빈칸에 묶어두는 활동지 중심의 제한적인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들은 장소를 시각적 정보로 분절하여 수집하는 대신, 대지의 요철에 발을 맞추고 바람의 방향에 몸을 기울이는 등 낮은 지리적 환경 속에 자신의 신체를 능동적으로 투사해야 한다. 지향궁의 회복은 단순히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장소의 고유한 미세한 분위기, 즉 세계의 살(Chair)이 뿜어내는 공감각적 울림에 신체의 모든 감각을 개방하고, 장소가 요구하는 파악 가능성(Grip)을 향해 온몸으로 화답하는 실존적 닻 내림(Ancrage)의 과정이다. 활동지의 빈칸을 채우는 지적 연산을 멈출 때, 비로소 학생의 신체는 세계와 직접 맞물려 돌아가는 지각의 원초적 역동성을 되찾게 된다.

신체적 도식을 가동하여 장소와 교감하는 구체적인 교육적 대안으로, 본 연구는 캐스트너(Castner)가 제안한 ‘다감각적 매핑(Multisensory Mapping)’을 현상학적으로 재해석하여 도입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지도 읽기나 활동지 작성이 관찰자의 시선에서 공간의 객관적 속성을 기록하는 ‘대상화된 지리’라면, 다감각적 매핑은 주체의 몸과 장소가 교차하며 빚어내는 ‘체험된 지리’의 기록이

다. 학생들은 시각에만 의존하여 랜드마크를 나열하는 대신, 재래시장 바닥의 끈적임, 농번기 들판에서 풍기는 흙내음, 좁은 골목길을 통과할 때 피부에 닿는 서늘한 공기와 소음 등 온몸의 감각을 통해 장소를 읽어낸다(Place reading). 여기서 매핑(Mapping)은 고정된 지식을 재현하는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나의 신체적 지향성이 장소의 물리적, 문화적 결투와 어떻게 맞부딪히고 얽혔는지를 드러내는 실존적 흔적 남기기(PP:637)이다. 이러한 다각적 장소 읽기는 장소를 대상(Object)이 아닌 ‘살아내는’ 실제로 전환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밟 딛고 선 곳이 다채로운 감각적 층위로 이루어진 깊이(Profondeur) 있는 세계임을 체화하게 한다. 결국 다각적 매핑은 관념으로 증발해 버린 지리 교육을 다시 흙투성이의 대지와 신체의 교차점, 즉 ‘원-천(Ur-Sprung)’으로 끌어내리는 탁월한 현상학적 실천이 된다.

2. 지각적 키치를 넘어 장소의 저항 속으로: 신체적 닻 내림(Ancrage)의 실천

관찰자적 시선이 만들어낸 ‘지각적 키치(Perceptual Kitsch)’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현장체험학습은, 우선적으로 매끄럽고 통제된 기하학적 공간 밖으로 학생이 낯선 환경과 직접 교차할 수 있도록 이끄는 실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쿠아리움이나 실내 체험관처럼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와 조도가 유지되는 공간은 메를로-퐁티가 말한 ‘자연적 시간(Temps naturel)’과 ‘역사적 시간(Temps historique)’의 얽힘을 거세한 무시간적 진공 상태다.

진정한 장소는 결코 주체에게 매끄럽게 호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바람, 더위, 지형의 요철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으로 무장한 채 주체의 신체에 끊임없이 물리적 ‘저항’을 가해온다. 초등 지리 교육에서는 이 저항을 회피해야 할 위험 요소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가 대지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수용해야 한다. 최근 초등 지리 교육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생활세계와 밀접한 지역 하천 등 구체적인 로컬 생태 환경을 체험의 장으로 삼으려는 긍정적인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최용준·김민성, 2025). 현상학적 관점은 이러한 로컬 지향적 실천에 더욱 깊은 실존적 토대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단순히 환경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은 기후와 계절이라는 자연적 시간의 리듬이 날 것

그대로 노출된 장소 속으로 진입해야 하며, 그 낯설고 불편한 저항과 맞부딪히며 균형을 잡는 신체적 긴장 상태, 즉 ‘닻 내림(Ancrage)’의 실존적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과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농번기 방학’과 그 노동의 참여는 지리적 공간을 신체로 체화하는 매우 유의미한 현상학적인 교육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농번기의 들판은 단순히 작물이 자라는 물리적 토지가 아니다. 그곳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역사적 시간과 자연의 순환이 치열하게 얽히는 지평이다.

학생이 흙 문은 지계를 어깨에 메고 질척이는 진흙탕 논두렁을 걷는 행위를 상상해 보자. 이때 대지는 눈으로 관조하는 2차원의 평면(풍경)이 아니라, 발이 푹푹 빠지는 거친 점성이자 어깨를 짓누르는 중력의 저항으로 다가온다. 무거운 지계를 지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학생의 신체 도식은 실시간으로 재편성되며, 발바닥부터 근육 전체가 대지의 요철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팽팽한 ‘지향궁’을 당기게 된다.

이 구체적이고 치열한 노동의 운동 속에서 장소의 ‘깊이(Profondeur)’는 관념적 수치가 아니라 신체적 피로와 무게감으로 감각되는 구체적인 실제로 다가온다. 학생은 무거운 걸음을 한 발짝씩 옮길 때마다 과거와 현재의 시점들을 매끄럽게 직조하는 ‘이행의 종합(Synthèse de transition)’을 몸소 수행하게 된다. 결국 농번기 노동과 같은 끈적한 로컬의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땀을 흘리는 행위는, 이 장소가 관람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신체가 닻을 내리고(Ancrage) 물리적으로 부대껴야 할 실존의 층위임을 깨닫게 하는 본질적인 지리 체험의 성격을 지닌다.

3. 사회적 지평으로의 투신: 상호신체적 얽힘과 ‘함께-실존함’의 경험

물리적 대지에 신체적 닻을 내린 주체는 필연적으로 그 대지 위에 얽혀 있는 타인(Autru)들의 삶과 직면하게 된다. 메를로-퐁티의 통찰처럼, 장소는 텅 빈 자연이 아니라 수많은 익명적 타인들의 인격적 행위와 지향성이 침전(Sédimentation)된 ‘사회적 세계(Monde social)’이다. 현행 체험학습이 통유리 버스와 안전한 체험관의 경계 안에서 타인을 구경거리로 전락시켰다면, 대안적 지리 교육은 이 관찰자적이고 초월적인 ‘신의 시선(Pensée de survol)’를 극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주체는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특정한 로컬의 진흙탕 속에 우발적으로 내던져진 ‘구속된 주체’이다. 따라서 지리적 삶은 타인의 삶을 활동지에 객관적 지식으로 기록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신체를 낫선 지역 사회라는 생생한 지평 속으로 거침없이 투신할 때 비로소 열린다. 학생들은 현지인들을 대상화된 풍경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 역시 그들과 동일하게 그 장소를 향해 지향성을 뻗어내는 현상적인 몸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는 공간을 소비하는 ‘관찰자’의 위치에서, 장소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세계의 의미를 직조해 내는 ‘참여자’로 도약하는 중대한 존재론적 사건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평으로의 투신을 구현하는 탁월한 지리적 실천은 지역의 재래시장이거나 마을 골목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서성이기(Hanging out)’를 수행하는 것이다. 필립스와 존스(Phillips & Johns)가 제안한 이 느슨하고 비목적적인 참여의 방식은, 메를로-퐁티의 ‘상호신체성(Intercorporeité)’을 현장에서 획득하는 매우 강력한 현상학적 방법론과 맞닿아 있다. 지역의 시장통은 정제된 키치적 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상인들의 거친 목소리, 좌판에 뻐비릿한 냄새, 그리고 좁은 통로를 지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타인과의 어깨 부딪힘이 혼재된 지각의 용광로이다. 학생이 이 소란스러운 공간을 서성이며 지역민과 눈을 맞추고 물건을 흥정할 때, 타인은 더 이상 추론되거나 관찰되는 대상(Object)이 아니다. 나의 지향성과 타인의 지향성은 구체적인 신체의 움직임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고 교차하며, 우리는 동일한 지각 장(Field)을 공유하는 ‘함께-실존함(Co-existence)’의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문현진, 2023:185). 시장의 낡은 가판대와 손때 묻은 도구들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고단한 생존과 노동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문화적 침전물이다. 학생의 신체가 이 끈적한 로컬의 살(Chair)과 부대끼며 그 침전된 의미들을 자신의 몸 도식 안으로 흡수할 때, 비로소 그 허공은 타인의 현상적인 몸을 통해 구체적인 장소성(Locality)을 부여받는다. 결국, 사회적 것(Le social)은 분석해야 할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온몸으로 얽혀 들어가야 할 ‘존재의 차원’ 그 자체이며, 참된 초등 지리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이 상호신체적 얽힘의 한가운데로 초대하는 유의미한 교육적 실천이다.

4. 대지에 뿌리내리는 삶: ‘세계의 살(La chair)’과 삶의 터전으로서의 거주자의 완성

다감각적 장소 읽기를 통한 지향공의 회복, 거친 대지의 저항과 마주하는 신체적 닻 내림, 그리고 로컬 시장에서 타인들과 부대끼는 상호신체적 투신은 개별적인 교육 방법론에 머물지 않는다. 이 모든 실천적 대안들은 중국에 메를로-퐁티가 도달한 후기 철학의 핵심적인 존재론적 지평, 즉 주체와 세계가 완전하게 융합되는 ‘살(La chair)’의 차원으로 초등 지리 교육을 격상시키기 위한 필연적 궤적이다.

현행 현장체험학습이 공간을 유리창 너머의 대상(Object)으로 타자화했다면, 본 연구가 제안하는 상호신체적 실천들은 학생의 몸과 로컬의 장소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존재론적 두께, 즉 ‘세계의 살(Chair du monde)’을 공유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학생이 진흙탕 속으로 발을 밀어 넣고 시장 상인의 거친 손을 맞잡을 때, 지각하는 주체인 학생의 신체는 동시에 그 장소의 흙과 타인의 시선에 의해 지각되는 객체로 그 지위가 역전되며 얽힌다. 이것이 바로 퐁티가 말한 숭고한 ‘교차(Chiasme)’의 사건이다. 장소는 더 이상 학생이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며, 학생 역시 세계를 관조하는 투명한 시선이 아니다. 진정한 지리적 실재성은 대상화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나의 살과 대지의 살이 맞부딪히며 존재의 결을 직조해 내는 이 치열한 교차와 얽힘을 통해서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

세계의 살 속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던진 주체는 더 이상 공간을 스쳐 지나가는 이방인이나 부유하는 관광객으로 머물 수 없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렌즈를 통과한 지리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을 객관적 지도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지식인으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 딛고 선 대지 위에서 타인들과 함께 얽혀 살아가는 ‘거주자(Habitant)’로 길러내는 데 있다.

거주(Habiter)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특정 좌표 위에 물리적으로 집을 짓고 머무는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진정한 거주는 대지의 척박한 저항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그곳에 침전된 익명적 타인들의 역사와 삶의 방식에 나의 신체를 끊임없이 맞추어 가는 치열하고도 능동적인 실존적 정착(Ancrage)의 과정이다(김대훈, 2010:316). 그림 3은 감굴방학이라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농번기 감굴방학 중 노동 체험과 땀방울 속



그림 3. 대지에 뿌리내리는 삶으로서의 현장체험학습(제주 감귤 방학)의 예
출처: 동아일보, 2009.



그림 4. 지역 공장 견학의 예
출처: 철강금속신문, 2024.

에서 학생들은 장소를 관찰하는 대신 장소를 ‘살아내며’, 그 과정에서 공간은 텅 빈 상자의 껍데기를 벗고 인간의 숨결이 박동하는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피어난다.

결국, 본 연구가 제안하는 대안적 현장체험학습은 지각적 키치로 점철된 관찰자적 시선을 거두고, 지리적 의미가 최초로 솟아오르는 원초적 도약, 즉 ‘원-천(Ur-Sprung)’으로의 귀환을 촉구하는 선언이다. 교실 밖으로 나선 학생의 발걸음이 통제된 공간을 벗어나 그림 4와 같은 지역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갈 때, 지리 교육은 비로소 세계의 단절을 치유하고 대지와 타인에게 가장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삶의 터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메를로-퐁티의 신체 현상학을 바탕으로 현

황 초등 지리 현장체험학습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한계를 규명하고, 상호신체성에 기반한 새로운 대안 모델을 모색하였다. 데카르트적 사유에 갇힌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을 ‘투명한 의식’으로 상정하며, 활동지라는 지각의 검열관을 통해 장소를 파편화된 정보로 환원시켜 왔다. 나아가 통제된 공간인 아쿠아리움, 직업체험관과 대형 버스의 통유리창은 학생의 신체적 정박(Anchorage)을 가로막고 이행의 중합을 거세하였다.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방문한 장소를 ‘지각적 키치(Perceptual Kitsch)’의 공간으로 전락시켰다. 이처럼 신체와 세계가 단절되고 타인이 관람의 대상으로 전락한 곳에서는, 삶의 터전이 피어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관찰자적 시선을 파기하고 학생의 신체를 장소의 물리적 저항과 사회적 얽힘 속으로 능동적으로 내던지는 거주형 체험학습을 제안하였다. 캐스트너(Castner)의 다감각적 매핑을 통한 지향궁의 회복, 농번기 노동을 통한 대지와 물리적 부대낌, 그리고 재래시장에서의 ‘함께 서성이기’는 단순한 교수-학습 방법의 변경이 아니다. 그것은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을 허물고 나와 타인, 대지가 하나로 얽히는 존재론적 교차(Chiasme), 즉 ‘세계의 살(Chair du monde)’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인 지리적 실천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상호신체적 지리 체험의 궁극적 의미는 ‘지각적 로컬 푸드(Perceptual Local Food)’라는 비유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로컬 푸드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생명력을 상실한 글로벌 푸드에 대항하여 대지의 구체적인 물질성과 장소성을 회복하듯, 초등 지리 교육의 현장체험학습 역시 이와 같아야 한다. 학생들은 먼 지역의 통제된 지각적 키치의 공간에서 신체적 정박과 이행의 중합을 제한당하는 대신, 자신의 생활세계와 맞닿은 지역의 실제적이고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서 타인들과 상호신체적으로 얽히는 실존적 경험이야말로 지리적 삶에 진정한 생명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Tuan, 1995:369).

유리창 너머로 풍경을 구경하고 활동지의 정답을 채우는 행위는, 방부제로 가공되어 매대 위에 올려진 무균의 ‘지각적 패스트푸드’를 소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반면, 거친 농번기의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재래시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현지인들과 피부를 부대끼는 행위는, 장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실재성을 온몸으로 소화해 내는 실존적 경험과 같다. 로컬의 공기와 타인들의 삶을

나의 신체적 도식 안으로 흡수할 때, 장소는 비로소 객관적 좌표를 벗어나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살’이 된다. 결국 대안적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낯것 그대로의 지각적 로컬 푸드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대지와 타인에게 단단히 뿌리내리는 진정한 거주자(Habitant)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과정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정을 요구한다. 최근 지리교육계에서도 교사가 주도하는 답사 기획의 중요성과 교수역량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나(김민성, 2022), 본 연구가 촉구하는 변화는 단순히 더 정교한 인지적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넘어선다. 지금까지 교사는 활동지라는 텍스트의 감옥을 설계하고, 학생들을 통제된 안전지대 안에 머물게 하는 ‘관리자’이자 지식의 ‘전달자’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메를로-퐁티의 렌즈를 통과한 교사는 이제 공간의 의미가 창출되는 원-천(Ur-Sprung)으로 학생들을 이끄는 ‘지각의 안내자(Guide of Perception)’로 거듭나야 한다.

지각의 안내자로서 교사는 안전한 관찰자적 시야를 제공하는 매개체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로컬의 실제적인 환경 속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교사의 역할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각적 키치에 마비되어 있던 학생들의 신체적 지향성을 흔들어 깨우고, 그들이 낯선 장소의 저항과 타인의 삶에 용기 있게 자신의 몸을 던지도록(탈-현전화) 촉구하는 것이다. 지리교육이 텅 빈 지도를 외우는 관찰자의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밭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 철학이라면, 교실 밖으로 나선 우리의 발걸음은 마땅히 관람석을 떠나 진흙과 땀방울이 엮히는 세계의 살 한가운데로 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학술적, 실천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학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초등 지리 교육 저변에 깔려 있던 데카르트적 객관주의와 탈육화된 주체의 한계를 고찰하고, 세계와 교감하는 ‘신체-주체’의 위치를 복원하였다는 데 기여점이 있다.

둘째, 지리교육학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학생들을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공간(Space)’의 관찰자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발생하는 ‘체험된 장소(Lived place)’의 참여자로 재개념화함으로써 지리 교육의 존재론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현장체험학습의 실천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시각주의와 정보 수집에 매몰된 기존의 ‘활동지 중심’ 체험학습을 비판하고, 다감각적 읽기와 상호신체적 만남을 통한 ‘장소와의 얽힘’이라는 대안적 체험학습의 설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문헌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이론적 탐구에 집중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현재 초등 지리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왜 특정 통제된 장소(아쿠아리움, 직업체험관 등)를 반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이고 실증적인 실태 조사가 병행되지 못했다.

둘째, 대안으로 제시한 현상학적 체험학습 모델이 실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키치화된 장소’와 ‘실존적으로 체험된 장소’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실제 학교 현장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본 연구의 철학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구현하고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註

- 1) 본 논문에서 메를로-퐁티의 주요 저서는 괄호 안에 약호와 쪽수만 표기한다. 『지각의 현상학』(주성호 역, 세창출판사, 2025)은 [PP]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남수인, 최의영 역, 동문선, 2004)은 [VI]로 표기한다.

(※ PP는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VI는 Le Visible et l'invisible의 약자다.)

- 2) 데카르트 철학에서 쓰이는 용어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한 물질
- 3) 메를로-퐁티는 제1차 세계대전 뇌 손상 환자인 슈나이더(Schneider)의 병증 사례를 통해 이를 실증한다. 슈나이더는 직업상 필요한 도구를 다루거나 별레를 쫓는 등의 삶의 맥락이 주어진 행동(구체적 운동)은 완벽히 수행하지만, 지시에 따라 허공에 팔을 뻗거나 눈을 감고 자신의 코를 가리키는 행위(추상적 운동)는 수행하지 못했다. 퐁티는 이 사례를 통해 인간의 지각과 운동성이 대상을 객관적으로 표상하는 지적 계산(Je pense)이 아니라, 세계가 요구하는 상황에 신체가 즉각적으로 맞물려 들어가

는 실천적 능력(Je peux)임을 밝혀냈다. 환자에게 결여된 것은 지성이나 기계적 신체 기능이 아니라, 대상과 나의 신체를 매개하여 의미 있는 공간을 창설해 내는 이 ‘지향궁’의 투사 능력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권정화, 2005,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서울: 한울.
- 권정화, 2015, 「지리교육의 이해를 위한 지리교육학 강의노트」, 서울: 푸른길.
- 김대훈, 2009, “몸의 지리교육적 의미: 몸의 지리성과 체험의 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훈, 2010, “몸의 지리성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과 지리교육적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3), 309-321.
- 김민성, 2022, “탐구기반 지리답사 기획 프로젝트를 통한 지리답사 교수내용지식 함양,” 한국지리학회지, 11(4), 393-405.
- 문현진, 2023,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 담긴 음악교육적 의미 탐색 및 적용,” 교원교육, 39(3), 179-199.
- 서정현, 2017, “지리과 야외 답사를 통한 중학생의 장소감 형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훈, 2012, “후설 현상학에서 실증적 객관주의 비판의 의의,” 철학과 현상학 연구, 55, 35-62.
- 정재승, 2011, “지리과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중등교육연구, 59(2), 563-597.
- 조광재, 2004,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서울: 이학사.
- 조상균, 2008, “효과적인 지역지리 학습을 위한 야외답사의 설계 -광양만권 지역을 사례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욱, 2024, “지리 답사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인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3(4), 379-392.
- 최용준·김민성, 2025, “초등학생의 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하천 환경지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효과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14(4), 467-481.
- 홍정아, 2026, “‘몸-체험적 기억’의 관점으로 살펴본 성찬 실행 방안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astner, H. W., 1990, *Seeking New Horizons: A Perceptual Approach to Geographic Education*,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Merleau-Ponty, M., 1945,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주성호 역, 2025, 「지각의 현상학」, 서울: 세창출판사).
- Merleau-Ponty, M., 1964, *Le Visible et l'invisible*, Paris: Gallimard(남수인·최의영 역, 2004,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서울: 동문선).
- Phillips, R. and Johns, J., 2012, *Fieldwork for Human Geography*, London: Sage.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 Tuan, Y. F.,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구동희·심승희 역, 1995, 「공간과 장소」, 서울: 대운).
- 독립기념관, 2024, 독립기념관 전시실 학습자료관, <https://learn.i815.or.kr/0103/exhibit/activity/index> (최종열람일: 2026년 3월 6일)
- 동아일보, 2009년 9월 25일자, “별초방학, 감귤방학, 제주만의 이색 방학”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19980518/7346285/1>
- 철강금속신문, 2024년 8월 12일자, “광양제철소 지역 아동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견학 프로그램 실시”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9229>
- 키자니아, 2026, 키자니아 홍보관, <https://www.kidzania.co.kr/> (최종열람일: 2026년 3월 6일)
- 교신 : 황인, 30004,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운주산로 1204-9 전의초등학교(이메일: in4804@hanmail.net)
- Correspondence: In Hwang, 30004, 1204-9, Unjusan-ro, Sejong, South Korea, Jeonui Elementary School (Email: in4804@hanmail.net)
- 투고접수일: 2026년 2월 28일
심사완료일: 2026년 3월 17일
게재확정일: 2026년 3월 23일